

작품 내용

제 목	지우개
내 용	불 켜진 화면 위로 눈부신 문장들이 별처럼 흘러내린다 우리들은 그 빛을 아낌없이 나누어 어두운 하루의 끝을 위로받는다 빛이 멀리 퍼져나갈수록 세상은 더 따뜻하고 환해지는데 그 빛을 만들어낸 이의 방은 어째서 가장 먼저 외딴섬에 가 있는 걸까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, 수많은 고뇌로 하루를 지새운 한 사람의 지독한 불면이 있었다 우리가 거저 얻은 찬란한 온기는 누군가 뼈를 깎아 피워낸 불꽃이라는 것 문장의 아름다움에만 환호하느라 그것을 지어 올린 주인의 이름을 너무 쉽게 지우고 있지는 않은가 빛나는 모든 것의 시작점을 지켜주는 일, 그 당연한 존중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이름이다.